

## PA-70

**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직파시기별 수량과 수발아 특성**이성태<sup>1\*</sup>, 성덕경<sup>1</sup>, 남진우<sup>1</sup>, 김영광<sup>1</sup>, 홍광표<sup>1</sup><sup>1</sup>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, 경상남도농업기술원**[서론]**

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밥쌀용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인,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간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쌀은 글루텐(gluten)이 들어 있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빵, 과자, 케이크, 국수 등 가공식품 제조에 밀가루의 일부를 쌀가루로 대체하고자 하는 가공이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최근에는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이 육성되었고 품종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. 본 시험은 현재까지 개발된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직파재배 시기별 수량, 수발아 특성을 분석하여 생산비 절감과 원료곡 안정생산으로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수행하였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쌀가루 가공용 벼 재배실험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연구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쌀가루 가공용 벼 직파 시기는 4처리로서 5월 10일, 5월 20일, 5월 30일, 6월 10일 이며 무논점파 기계파종을 하였다. 시비량은 벼 표준시비량으로 질소-인산-칼리=9.0-4.5-5.7 kg/10a 으로 사용하였다. 시험에 사용된 쌀가루 가공용 벼는 5품종으로 설갱, 한가루, 신길, 전주 614호 및 전주615호를 사용하였다. 벼의 수량구성요소, 수발아, 손상전분함량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소분 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별 출수기는 전주614호와 전주615호가 빨랐다. 쌀 수량은 신길이 모든 직파시기에서 542 kg/10a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량이 높은 품종은 설갱이었다. 수확기 품종의 수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직파시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품종은 설갱과 신길로서 수발아율 0.9% 이하 이었다. 가장 높은 수발아율을 보인 품종은 전주615호와 전주614호로서 5월10일 파종 시 수발아율은 각각 32.2%, 17.6% 이었다. 남부평야지에서 수발아 회피를 위한 적정 직파시기로 설갱과 신길은 5월10일~6월10일, 한가루는 5월30일~6월10일, 전주614호와 전주615호는 6월10일 정도로 판단되었다. 손상전분 함량은 품종과 직파시기별 3.2~5.7% 로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[사사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2960082018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주저자: Tel. 055-254-1222, E-mail. lst08@koea.kr